

썬양에 진 호턴이 시상식 거부한 까닭은?

(400m 자유형 2위)



“썬양은 라이벌이 아닌 금지 약물 복용자” 무언의 시위
4연패 썬양, 도핑 재판 중 출전 “대회 잘 마무리 할 것”

썬양이 쏘아 올린 ‘도핑 논란’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 21일 막이 오른 경영 종목은 시작과 함께 전 세계 수영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영 종목의 첫 금메달이자 썬양의 대회 4연패가 걸려있던 남자 400m 자유형. 스타트 총성과 함께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관객의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3분 43초 17에 썬양이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자 중국 응원단의 함성으로 경기장이 짜랑짜랑 울렸다.

전광판을 확인한 썬양은 양 손바닥으로 물을 거지게 내리친 뒤 오른 손을 불끈 쥐고 포효를 했다.

썬양의 4회 연속 우승으로 경기가 끝난

뒤 좌외에서 또 다른 경쟁이 펼쳐졌다. 주인공은 썬양의 뒤를 이어 끝인한 2016 리우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맥 호턴(호주)이었다.

공동 취재구역에서 “그의 행동과 말에 어떤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던 호턴은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됐지만 시상대에 오르지 않았다. 물론 금, 은, 동메달리스트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도 연출되지 않았다.

“썬양은 라이벌이 아닌 금지 약물 복용자”라는 발언 등을 하며 몇 차례 썬양과 대립각을 세웠던 호턴의 ‘무언의 시위’였다.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 썬양은 ‘4연패’ 여부와 함께 ‘금지 약물 복용’ 논란으로 중심에 섰다.

썬양은 지난 2014년 심장 질환 치료 목

적으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혈관확장제)이 포함된 바소렐을 복용해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도핑검사 샘플 채집을 위해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 직원의 혈액이 담긴 도핑용 유리병을 깨뜨리는 소동을 벌였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경고라는 경징계에 반발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FINA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지만, 재판이 미뤄지면서 썬양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썬양을 향한 시선은 두 가지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썬양은 다시 한번 챔피언에 등극한 뒤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리고 우승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시상대 높은 자리에서 국가가 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나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일을 잘하고 잘 마무리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며 “(호턴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시상대에 서는 것은 나라를 대표해서 오르는 것이다. 이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들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썬양 논란은 뜨겁다.

썬양의 4연패 달성 소식을 알린 FINA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이건 불공평한 경쟁이다. 실망이다”, “그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의 우승에 감명받았을 것이다”라는 비난의 댓글과 “위대한 썬양과 위대한 중국”, “맥 호턴이 패배자다. 경쟁자와 중국을 존중하지 않았다” 등의 옹호 댓글이 달리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열린 경영 경기에서도 썬양의 질주와 함께 ‘도핑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호주의 맥 호턴(왼쪽)이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시상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썬양(가운데)과 시상대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시상대에 오르지 않은 채 은메달을 받았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김정숙 여사 “한국 선수들 응원합니다”

1박2일 일정 광주 찾아... 청와대 참모·장관들 참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흥행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22일 광주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응원하고자 광주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KTX로 광주에 도착한 뒤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민화 특별전’을 관람하고,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찾아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 출전하는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을 응원했다.

김 여사는 광주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 23일 경영 종목 중 한국 선수가 뛰는 경기를 한 차례 더 관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회 자원봉사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위로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도 22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광주를 방문, 경기장을 찾아 응

원에 동참했다. 고 대변인과 여선웅 청년소통정책관 등 20~30대 젊은 행정관 20여명은 KTX를 타고와 경기를 관람한 다음 버스를 타고 이날 밤늦게 상경했다.

사회수석실도 김연명 수석의 중심으로 주중에 경기장을 찾아 응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광주를 찾았으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5일)과 강기정·김연명 수석, 민형배 비서관(26일) 등 30여명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여사와 청와대 참모, 부처 장관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스포츠 대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독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서 응원했으면 좋겠다”며 “청와대부터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단=최권원 기자 cki@



22일 경영 경기가 진행중인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관람객들이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영 경기 입장객이 하루 1만3658명으로 집계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해리스 주한美 대사 “민주주의 가치 기억”

5·18묘지 참배... 수영대회 선수 응원차 방문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22일 부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유공자들을 추모했다. 엄숙한 표정으로 민주묘지에 도착한 해리스 대사는 민주주의 문로 들어 서며 옷깃부터 단정하게 여겼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민주묘지 측의 안내를 받고 5·18민주항쟁추모탑 앞에 마련된 제단 앞으로 이동해 참배 식순에 맞춰 헌화·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분향식을 마친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찾아 그의 주요 업적과 사연을 전해 들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가 5·18묘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피하고자 참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이날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을 접견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취재단=김음희 기자 kimyh@

◇오늘의 광주세계수영

△경영=남자 평영 50m·여자 자유형 200m·남자 접영 200m·남자 자유형 800m 예선(10시) 남자 자유형 200m·여자 자유형 1,500m·여자 배영 100m·남자 배영 100m·여자 평영 100m 결승, 남자 평영 50m·여자 자유형 200m·남자 접영 200m 준결승(20시 이상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하이드라이빙=여자부 3, 4라운드(12시·조선대 하이드라이빙경기장)

경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 010-3605-5000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원이상 가능한 분

장성토지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5m 이격 편백숲, 꿈의 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완도군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저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완도군 완도읍 산 자연녹지 3306㎡ 전망좋은 사찰적합 5000만원
- 나주대학교에서 광주방향 강변도로 접 3736㎡ 조경수 식재 적합 1억8500
- 월산동 다가구 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인편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솔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이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인동 버스도로 땅 709㎡ 건평 810㎡ 사육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 앞대면 천사대학교에서 15분 53397㎡ 중 계획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